

질병관리청장, 프랑스 주최 원헬스 정상회의 참석

- 2026년 G7 의장국 프랑스 초청으로 원헬스 정상회의 참석
-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국의 원헬스 전략과 범부처 협력체계 소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6년 4월 7일(현지시간)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원헬스 정상회의(One Health Summit)에 참석하여,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원헬스 분야*의 국제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정책 경험과 범부처 협력체계를 소개하였다.

* 원헬스: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상호의존적이라는 개념에 기반한 다학제·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는 공중보건 패러다임

이번 회의는 2026년 G7 의장국인 프랑스가 주최한 고위급 회의로, 약 20여 개국과 주요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인수공통감염병 숙주 및 감염병 매개체,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항생제 내성, △오염물질 노출 등 원헬스 관련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장관급 주제별 토의 중 ‘인수공통감염병 숙주 및 감염병 매개체’ 세션에 참석하여, 기후변화와 팬데믹 등 미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원헬스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원헬스를 주제로 정상회의를 개최한 프랑스 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G7 초청국으로서 한국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게 된 것을 뜻깊게 평가하였다.

이후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G7 보건실무회의(HWG, Health Working Group)의 항생제 내성 및 팬데믹 대비·대응 세션에서는 범정부 협력 기반의 원헬스 대응체계와 신종감염병 대비 중장기 전략을 공유한다. 아울러, 글로벌 항생제 내성 및 팬데믹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 확대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번 회의 참석은 원헬스와 글로벌 보건안보 관련 주요 논의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고,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분야에서 우리의 정책적 기여와 국제 협력 의지를 국제사회에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원헬스 기반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지속 고도화하는 한편, 관련 국제 논의와 협력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와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람, 동물, 환경을 아우르는 원헬스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은 그간 축적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글로벌 보건안보 증진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현장 방문 사진

담당 부서 <총괄>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지아 (043-719-6858)
		담당자	사무관	이신예 (043-719-7759)
담당 부서 <협조>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선규 (043-719-7120)
		담당자	사무관	조은영 (043-719-7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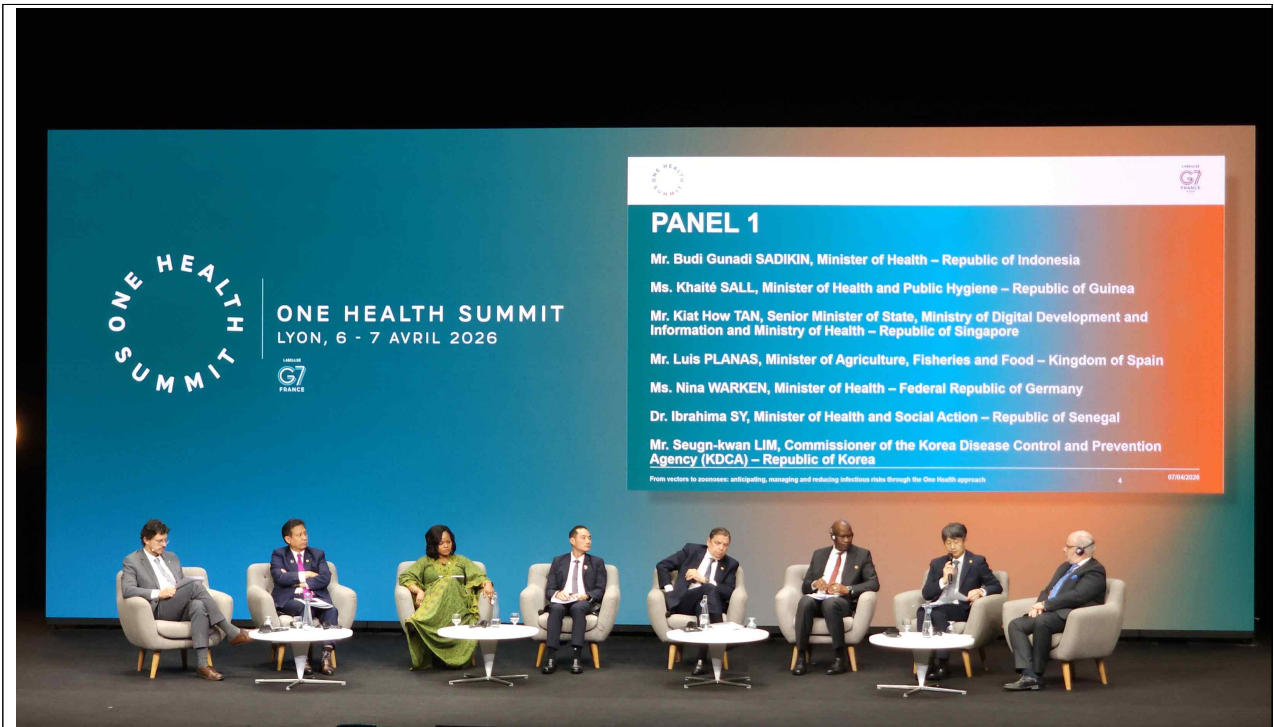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원헬스 정상회의에 참석
(왼쪽부터 프랑스 고등교육연구 우주장관, 국제파트너십 및 프랑스어권 정책 장관, 보건부 장관, 농림부 장관)

Republic of Korea

managing and reducing infectious risks through the One Health approach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원헬스 정상회의 장관급 패널토의에서 패널 참여 및 발언하는 중(1)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원헬스 정상회의 장관급 패널토의에서 패널 참여 및 발언하는 중(2)